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한·베트남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etnam'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강 영 문** Young-Moon Kang

| 목 차 |

I. 서 론	V. 결론
II. 베트남의 통상정책의 변화	참고문헌
III.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의 특징	ABSTRACT
IV.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한·베트남 통상협력	

국문초록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약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베트남, 통상정책, FTA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2016-0067)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론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가 좌초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TPP의 최대수혜국인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통상파트너 국가이다. 한국이 베트남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베트남의 통상정책의 배경과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베트남 통상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이후 시장개방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의 통상관계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문화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TPP,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EC(아세안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와 같은 다자간 FTA 관점에서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한·베트남 통상협력관계를 연계한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기존의 베트남 연구의 주된 흐름은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의 경제적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고 베트남의 개별국가 통상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도이머이 정책을 경제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경제성과의 과정 등을 분석하여 도이머이 정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하고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베트남 개별국가의 관점이 아닌 베트남의 통상관계에서 접근하여 베트남의 향후 통상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베트남의 통상정책의 변화

1. 도이머이 정책이전의 통상정책

베트남의 중국, 프랑스, 일본의 식민지 경험과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의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실용적인 통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통일 후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도

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리더들은 통일에 따른 자신감으로 그들의 경제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성공적인 통일처럼 드라마틱하게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성공대신에 혹독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다. 설상가상으로 1978년과 1979년에 홍수와 자연재해까지 일어나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하였다¹⁾.

특히 통일 이전에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고착화된 남부지역은 베트남 통일정부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통일 정부의 경제성과가 뒷걸음질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대외적인 통상환경도 1978년에 베트남이 이웃국가인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서구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도이머이 정책 이전 베트남의 대외통상 및 외교정책은 인접 사회주의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와 의 특별한 주권관계의 보전이 최우선 정책이었다²⁾. 이처럼 도이머이 정책 이전의 통일 베트남의 통상정책은 내부경제의 혼란속에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이외에는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 도이머이 정책 이후의 통상정책

베트남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이머이 정책으로 알려진 혁신정책을 도입하여 글로벌 자본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베트남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³⁾. 베트남 정부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추진한 도이머이 정책은 쇄신과 혁신의 의미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인 중앙계획적인 경제체제에서 시장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획기적인 대변화를 모색하는 경제정책이다. 베트남 정부는 통일이후 발생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속적인 개혁을 착수하였다⁴⁾.

베트남 정부가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1) Peter Cruch, A short history of south east Asia, John Wiley & Sons Pte Ltd, 2003, pp.196-197.

2) 천정우외, 『아시아의 이해』, 양서원, 2015, p.114.

3) Norman G. Owen, The emergency of modern southeast asia, university of Hawai's Press, 2005, pp.469-479.

4) Vo Tri Thanh and Nguyen Anh Duong,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regional integrat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 achiev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2, p.307.

베트남은 서구사회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캄보디아에서 철군을 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동남아 이웃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하였고 이로인해 베트남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⁵⁾.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아세안의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아세안의 통합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⁶⁾.

3. 도이머이 정책의 성과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을 시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90년 100달러 정도에서 2014년 2,052달러로 20배 증가하였고, 무역도 도이머이 정책이 시행되던 1986년 30억달러에서 2014년 2,980억달러로 급증하였다.⁷⁾

<표 1>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의 GDP 증가율(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단위: %)

연도	1986	1987	1988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000	2007
GDP	2.8	3.6	6.0	5.8	8.7	8.1	8.8	9.5	9.3	6.8	8.5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CIEM, 이한우(2011)

<표 2> 도이머이 정책 이후 대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연도	건수	투자금액(백만달러)
1988	37	341.7
1989	67	525.5
1991	152	1,291.5
1993	274	3,037.4
1994	372	4,188.4
1995	415	6,937.2
2007	1,544	21,347.8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이한우(2011).

5) Peter Cruch, op.cit., p.197.

6) Vo Tri Thanh, Achieving an efficient AEC by 2015: a perspective from Vietnam, achiev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2, p.171.

7) 이한우,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한국동남아시아학회, 2016, pp.51-52

4.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정책과 FTA 확대정책

〈표 1〉에서 보듯이 베트남 경제는 도이머이 정책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 및 투자국인 미국과 EU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이 감소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내재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⁸⁾.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최근들어 한·베트남 FTA와 같은 쌍무적 FTA뿐만 아니라, 베트남·EU FTA, TPP 등과 같은 다자간 FTA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으로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글로벌 연구기관들의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경제 전망도 약 6%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는 무엇보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통상정책이 국제통상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가운데 FTA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010~2015)

구분	단위	2010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 증가율	%	6.4	5.2	5.4	6.0	6.7
GDP	십억 달러	115.3	155.8	171.2	186.2	198.7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12.5	25.6	25.9	34.2	33.6

자료 : IHS Global insight, 정재완(2016).

8) 광성일의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12-13.

〈표 4〉 주요 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2017~2020)

(단위: %)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IMF	6.2	6.2	6.2	6.2
Global Insight	6.5	6.6	6.6	6.4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IHS Global insight, 광성일의(2016).

Ⅲ.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의 특징

1. 도이머이 정책의 목표는 사회주의국가 건설

베트남은 1986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남아 있다⁹⁾. 베트남은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경제개혁의 지향점을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공식화하였다¹⁰⁾.

베트남 정부의 도이머이 정책의 도입과 추진 목적은 경제성장을 통한 자본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가 아닌 안정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사회주의 국가목표는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산업정책에 공고하게 반영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핵심산업의 육성을 사영기업에 비해 공공적인 부분이 강한 국유기업의 활성화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통상 환경조성과 국제통상협력이다. 특히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우려하는 측면도 강하다¹¹⁾.

베트남에서 국유기업은 생산부문의 자산과 토지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선진국 등으로부터 베트남에 지원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

9) 정혁훈, 「메콩강 실크로드」, 매일경제신문사, 2011, p.193

10) 조영태,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아라」, 매일경제신문사, 2012, p.20.

11) 천정웅외, 전계서, p.114.

럼 베트남 정부는 국유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

2. 베트남 무역의 특징과 대미통상관계

2015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은 21%로 미국은 <표 5>에서 보듯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다¹³⁾.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미국은 6위의 수입국가로 미국은 베트남의 통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국제통상 무대로의 진출은 모두 미국과의 통상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통일 이후 베트남 경제는 대외적으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구국가들의 강력한 금수조치로 베트남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기나긴 경제적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트남의 침체된 수출은 미국이 1994년에 베트남에 대해 30년동안 취하였던 금수조치(embargo)를 철회함으로써 다시 급증하였다¹⁴⁾.

또한 베트남의 WTO 가입은 미국으로부터의 항구적 무역정상화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PNTR)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들어 베트남의 TPP가입도 미국과의 통상관계가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표 5〉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추이(2015)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명	금액
1	미국	33,725.0
2	중국	16,868.4
3	일본	14,189.1
4	한국	8,923.3
5	홍콩	6,953.0

자료 :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광성일외(2016).

12) 이한우, 전계논문, p.56.

13) 광성일외, 전계서, pp.12-23.

14) Peter Cruch, op.cit., p.197.

〈표 6〉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5)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명	금액
1	중국	50,326.5
2	한국	27,600.4
3	일본	14,416.0
4	대만	11,027.7
5	태국	8,327.7
6	미국	7,700.3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광성일 외(2016).

3. 원조의존 경제에서 공업국으로 변신

베트남은 1993년 이후 국제기구와 선진국가들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수여받기 시작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대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41억달러로 베트남 국민소득의 2.4%에 해당되며, 수출액의 약 3%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는 70% 이상이 경제인프라 구축에 투입되었다¹⁵⁾.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ODA를 통한 국내 경제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도이머이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공업국으로 성장하는 장기목표를 수립하였다¹⁶⁾.

4. 외국인 투자기업이 성장을 주도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점유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이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다.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45억달러이다¹⁷⁾.

베트남의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미약하여 국유기업이 베

15) 김한성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동향과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57.

16) 소영일, 「베트남경영전략」, 지구문화사, 2008, p.20.

17) 광성일외, 전계서 pp.20-35.

트남 전체 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약 10~15%정도에 머무르고 있다¹⁸⁾.

5.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행중 그러나 하드웨어는 낙후

베트남은 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의 통상정책과 통상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대폭 수정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특히 베트남의 수입관세는 WTO 가입 후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수입관세를 인하기 위해 먼저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다각적으로 도모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트남의 무역관련 제도가 선진화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과 제도는 개선하였지만, <표 8>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표 7> WTO 가입 후 베트남의 수입관세 변화

구 분	WTO 가입 당시(2006년)	WTO 가입후(2019년)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23.5%	20.9%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	16.8%	12.6%
전체 평균 수입관세	17.4%	13.4%

자료: 김태윤외(2010)

<표 8>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도로인프라 현황(2014)

구분	단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도로 포장률	%	66	86	79	100	83	52

주: 베트남은 2012년임.

자료: AJTP Information Center(<http://www.ajtpweb.org>), 오윤아외(2015).

18) Vu Thanh Tu Anh,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Vietnam : Impact of State-Business Relationship on Industrial Performance, 1986-2012 GEG Working Paper 2015/107.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me, 2015, p.10: 이한우, 전계논문, p.56.

IV.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한·베트남 통상협력

1. 베트남의 국가목표와 개혁개방 속도에 적합한 투자와 공적개발 원조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추진 이후에도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부인 호치민이 채택한 만장일치제를 고수하고 있어 정책결정이 느리다¹⁹⁾. 베트남의 정치체제 개혁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²⁰⁾. 베트남 정부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과 유사한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개혁·개방의 속도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수출확대이다. 베트남 국내총생산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정도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베트남 10대기업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아직까지 사영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²¹⁾.

특히 베트남은 2015년에 국유기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폐지하였다²²⁾.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한국의 대베트남 ODA 정책은 베트남 국유기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국기업도 베트남 국유기업과 협력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베트남의 산업정책에 부응하는 한·베트남 산업협력 방안

베트남의 전체 생산에서 고급기술과 중급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로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²³⁾.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경쟁력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직 취약하다. 특히 경제 성장 과정속에 획기적인 기술력 향상이 동반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전자가 2009년에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하여 수출한 휴대폰은 베

19) 정혁훈, 전계서, p.193.

20) 이한우, 전계논문, p.51.

21) 조영태, 전계서, p.24.

22) 김찬수, “베트남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로 경제성장 지속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17, p.88.

23) 이한우, 전계논문, p.71.

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다²⁴⁾.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건립은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염원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고도화와 수출산업을 다변화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2013년 1,12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여 베트남의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상위 10개 기업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은 모두 베트남 기업이다.²⁵⁾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의 건립과 이를 통한 수출증대는 넥스트 차이나로서의 베트남이 저임금을 활용하는 한국의 정제산업의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산업의 생산기로서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처럼 베트남의 산업정책에 부응하면서 한국기업의 세계화전략, 국내산업의 발전전략에도 부응하는 한·베트남 통상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3.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한·베트남 통상협력 방안

1) 베트남과 아세안 통상관계

베트남은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하였고 2001년에는 아세안 의장국이 되었다²⁶⁾.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1998년에 APEC회원국이 되는 등 아세안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 무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²⁷⁾. 베트남은 아세안 10개국과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를 넘어 아세안의 리더가 되고자하는 통상전략을 갖고 있어 태국, 싱가포르 등의 선발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후발아세안 국가들인 미얀마 등과도 경쟁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아세안 10개국들과의 통상관계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 베트남과 일본의 통상관계

베트남과 일본의 통상관계는 일본의 대베트남 원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의 대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는 1992년 이후 연간 8~9억달러를 지원하여 일본은 베트남 공

24) 광성일의, 전계서, p.13.

25) 박지은외, 「한베트남 FTA 기대효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p.5.

26) Peter Cruch, op.cit., p.197.

27) Vo Tri Than,op.cit., pp.171-172

적개발원조(ODA)의 최대 공여국으로 베트남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50%를 차지하고 있다²⁸⁾. 또한 최근들어 베트남과 중국간의 갈등이 심한 남중국해 문제에서 베트남은 일본과 공조를 하고 있다.

특히 좌초위기에 있는 TPP의 발효를 위해 일본과 베트남의 통상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본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예속화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상협력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베트남과 중국의 통상관계

베트남 정부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1978년 말에 캄보디아를 침공하였는데 이에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하는 등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²⁹⁾ 그러나 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관계를 개선하였으나 미국에서의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다.

베트남과 중국과의 통상관계는 <표 9>에서 보듯이 미국내에서 베트남의 중추산업인 의류제품의 수출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통상협력은 경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표 9> 의류부문 미국 수출 상위 5개국(2014)

(단위: 백만 달러)

국명	순위	금액
중국	1	41,820
베트남	2	9,955
인도	3	6,717
방글라데시	4	5,065
멕시코	5	5,005

자료: OTEXA(Office of Textiles & Apparel),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 USA Department of Commerc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무역관(2015)

28) 소영일, 전계서, p.21.

29) Peter Cruch, op.cit., p.197.

4) 상호보완적인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관계 구축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제통상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아세안은 베트남과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통상협력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베트남과 지역적으로 역내에서 패권을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영토를 둘러싼 분쟁도 없다. 특히 베트남 입장에서 경제적 예속을 우려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통상정책인 동남아의 통상리더로서 도약, 중국, 일본과의 균형잡힌 통상관계 유지, 대미 통상의 확대 등에 적합한 대베트남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트남은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수출 1위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가 베트남의 통상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한·베트남의 상호보완적인 통상관계는 대미수출의 확대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

베트남의 대미수출의 최대품목은 의류산업이다. 베트남의 의류산업에서 최대강점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다. 이에 비해 의류산업에서 한국의 강점은 선진화된 기술력, 디자인과 자본력 등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의류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상호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 통상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류산업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베트남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통상협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시장에서 경쟁국가들에 비해 베트남과의 지속가능한 통상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본질적인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한국의 대베트남 통상정책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50개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1위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³⁰⁾. <표 10>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베트남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동기간 한국의 AFT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인프라 구축비용은 베트남의 전체 AFT를 통한 경제인프라에서 약 4%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기간 일본의 비율은 50% 이상이다³¹⁾.

즉,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ODA 수혜국이지만 한국의 대베트남 AFT의 약 97%가 경제

30) 송승이,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의 시장 베트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 p.11.

31) 김한성외, 전제서, p.63.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분야에 지원한 일본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에비해 <표 10>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베트남 Aft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 금액의 약 6%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되려면 상호보완적인 통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베트남 Aft에서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양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을 상호협력하여 진출하려면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Aft에서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의류산업 종사자는 제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의류산업 종사자의 상다수가 초등교육만을 받아 기술, 디자인 등의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³²⁾.

따라서 베트남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의 연구개발, 디자인, 조립, 수출 등에서 베트남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ODA에서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사내에 디자인 스쿨, 기술학교 등을 설립하고 한국기업의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이 교육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ODA를 통한 한국기업내 사내교육기관 설립과 한국기업의 기술자들을 통한 교육은 베트남 의류산업 종사자들의 낮은 학력에 따른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가져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Aft를 통해 베트남의 의류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베트남에 대미수출을 목적으로 직접투자한 한국의 의류업체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결국 한국의 대미수출도 증가하게 되어 한국과 베트남 모두 통상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트남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기업의 단순한 직접투자와 한국정부의 베트남 경제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는 Aft를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다변화하여 베트남의 관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성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대베트남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와 직접투자의 단기적인 성과가 통상정책평가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베트남의 수직적 글로벌 분업체계 구축의 중장기적인

32) 노환창외, 「베트남 섬유산업동향」,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2016, p.17.

관점에서 단계별로 대베트남 통상정책과 ODA 정책이 추진되어 베트남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

〈표 10〉 한국의 베트남 AFT 분야(2013)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금액
경제인프라	118.4 (96.3%)
생산성 향상	7.2 (5.9%)
무역 정책/규제	2.1 (1.7%)
무역 관련 조정	0.0 (0.0%)

자료: OECD(<http://stats.oecd.org>), 김한성외(2015).

4. 다자간 통상무대에서 한·베트남 통상협력방안

한국의 대중국통상정책과 대미국통상정책은 RCEP, TPP와 같은 거대경제블록을 통해 한·베트남의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베트남의 통상관계는 한국과 베트남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한국과 베트남의 대미통상정책, 대중국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속한 다자간 통상협의체는 〈표 11〉에서 보듯이 WTO, APEC, ASEM 등이다. 한국만이 속한 다자간 통상협의체는 OECD 등이다. 이에 비해 베트남만이 속한 다자간 통상협의체는 AEC 등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WTO 회원국으로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특히 중단된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선진국으로부터 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파트너로 공조해야 된다. 특히 반덤핑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무역규제 수단의 발동요건 강화 등에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한국은 반덤핑 관세의 제소를 많이 받는 국가중에 하나이다. 베트남도 최근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규제 수단을 통해 수입국으로부터 무역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DDA협상에서 한국과 공조하여 WTO의 무역규제수단이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무역자유화의 협의가 진행중인 APEC, ASEM 등에서 한국은 동북아 국가와 선발개도국으로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와 후발개도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유럽국가들의 통상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정책은 양국의 통상확대 뿐만 아니라 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통상이 역외국가들과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을 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의 통상리더 국가가 되고, 베트남이 동남아 통상리더 국가가 되려면 양지역을 대표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정책이 미시적으로 양국간의 통상관계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거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과 역외지역의 통상확대를 위한 통상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에 비해 다자간 통상무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OECD회원국이다. 국제통상 이슈와 국제 통상규범은 상당부분 WTO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OECD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비회원국인 베트남의 국제통상 이슈와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입장을 OECD에 전달하고 OECD와 의견을 조율하는 다각적인 통상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에 비해 다자간 통상무대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AEC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수출과 투자 2위 지역으로 한국의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중에 하나이다. 특히 AEC는 역내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 한국의 아세안 통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아세안과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지만, AEC로 확대 개편된 아세안과의 통상에서 새로운 대아세안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에서 후발아세안 회원국들과 선발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통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통상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베트남을 한국과 AEC간의 통상교섭 국가로 삼아야 한다.

〈표 11〉 한국과 베트남의 다자간 통상협의체 참여 현황

국가	다자간 통상협의체
한국	WTO, APEC, ASEM, OECD, G20
베트남	WTO, APEC, ASEM, AEC.

V. 결론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이후 자국시장을 적극 개방하고, WTO의 가입국이 되면서 베트남의 통상관련 제도 등에 국제통상 규범을 대폭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정

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고, 안정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목표이다. 또한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비해 좀더 차분하다.

따라서 한·베트남 통상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중국과는 상이한 베트남의 통상정책에 적합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와 개방속도, 산업정책에 적합한 대베트남 투자와 공적개발원조를 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사영기업중심의 경제성장보다는 국유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DA 정책과 대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국유기업과의 통상협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정채산업인 의류산업이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베트남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과 베트남기업의 수직적인 분업체계에 의한 통상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대미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의 통상정책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상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상호보완적인 한·베트남 통상관계를 구축하려면,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관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변화하는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대베트남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은 주요 대상국인 아세안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내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과 남중국해 등의 갈등이 공존하고 있고, 최근 일본과는 통상관계가 우호적이지만 경제적 예측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 갈등, 경제적 예측의 우려가 없는 한국을 베트남이 동북아의 대표 통상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통상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동북아의 통상리더와 동남아의 통상리더로서 동아시아의 통상증진을 통한 양국의 통상관계의 확대를 도모하려면 한국과 베트남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WTO, APEC 등에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OECD에서, 베트남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AEC에서 서로 상대국의 통상정책을 대변해주고 통상정보를 공유하는 통상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선한(2007), 「베트남」, 김&정.
- 김한성외(2015), 「베트남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동향과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찬수(2017), “베트남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로 경제성장 지속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 김태윤외(2015),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곽성일외(2016),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노환창외(2016), 「베트남 섬유산업동향」,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역관(2015), 「TPP 베트남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가」.
- 박지은외(2015), 「한베트남 FTA 기대효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혁훈(2011), 「메콩강 실크로드」, 매일경제신문사.
- 정재완(2016), 「베트남의 건설 및 건설중장비 시장현황과 전망」, 한국무역보험공사.
- 조영태(2012),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아라」, 매일경제신문사.
- 조재환(2016), 「베트남내 한국 다국적기업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소영일(2008), 「베트남경영전략」, 지구문화사.
- 송송이(2013),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의 시장 베트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오윤아외(2015),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주현(2015), 「TPP 베트남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것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 무역관.
- 이한우(2016),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 이한우(2011), 「베트남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천정웅외(2015), 「아시아의 이해」, 양서원.
- 하병기외(2015),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변화와 대베트남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Norman G. Owen(2005), The emergency of modern southeast asia, university of Hawai's Press.
- Peter Cruch(2003), A short history of south east Asia, John Wiley & Sons Pte Ltd,
- Vo Tri Thanh(2012), Achieving an efficient AEC by 2015: a perspective from

- Vietnam, achiev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o Tri Thanh and Nguyen Anh Duong(2012),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regional integration: a perspective from Vietnam, achiev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u Thanh Tu Anh(2015).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Vietnam : Impact of State-Business Relationship on Industrial Performance, 1986-2012 GEG Working Paper 2015/107.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Programme, 2015.
- Business in Asia <http://www.business-in-Asia.com>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IHS Global Insight, Global Insight's Comparative World Overview, <http://ihsglobalinsight.com>
- UN <http://data.un.org>
-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http://www.doingbusiness.org>
-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1pisurvey.worldbank.org>
- <http://www.gso.gov.vn>
- <http://stats.oecd.org>
- www.koreaexim.go.kr
- www.ajtpweb.org

A Study on the Vietnam'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Young-Moon Ka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ietnam'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which is affected Korean's customs policy and fta policy, oda policy to develop diverse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ccomplished various co-development in vertical speci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Vietnam has exerted intense efforts to ameliorate its commercial environment for becoming WTO member and attracting FDI as next China.

Vietnam has become WTO member and Vietnam's system and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erce has been changed for global standard, Vietnam hope to become international commerce leader in ASEAN, so Korea should take diverse efficient measures to assist Vietnam's continuous industrial development and advanced system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two nations should more mutually assist in mega international commerce round negotiation to intensify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system.

<Key Words>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FTA